



치매 돌봄 프로젝트

2021-22 대규모 보조금 사업 최종 후보 프로젝트

호스트 스폰서

체세나 로타리클럽 (2072 지구)

시행 파트너

로마냐 지역 보건 당국 (AUSL)

볼로냐 대학교

치매 돌봄 프로젝트는 치매 환자를 위한 양질의 공공 및 자원 봉사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임상 경로를 만들고, 새로운 파트너와 재정적 지원을 동원하여 이탈리아 로마냐 지역에서 인지장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치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마냐의 인구는 112 만 6,342 명이며, 그 중 24%는 65 세 이상이다.

배경

체세나 로타리클럽이 체세나-발레 델 사비오 로타리클럽 및 발레 델 루비콘 로타리클럽의 지원을 받아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로마냐 지역 보건 당국(AUSL)과 볼로냐 대학교와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의 로마냐 지역에서 인지 장애가 있는 약 2 만명의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 로타리재단 글로벌 보조금을 실시한 경험은 바탕으로, 이 파트너십은 시설 및 데이케어에 수용되어 있는 치매 노인 70%의 치료를 돕고 가족 및 간병인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선해야 할 문제

치매는 가족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 치매를 둘러싼 낙인으로 인해 가족들은 문제를 숨기게 되고, 특화된 의료진의 부족으로 진단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진정제, 항우울제의 과용과 집 혹은 요양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입원이 빈번해지면서 치매가 진행되는 일이 잦아진다. 위기 상황(섬망)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병원 응급실이다. 로마냐 내의 자원봉사자 협회들은 조율과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화를 위한 재활 센터와 데이케어 센터가 부족하고 환자 가족들이 선택 가능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립된 채 치매 환자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결책

체세나 로타리클럽과 AUSL 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양질의 치료를 위한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는 인지장애 노인을 위한 시설에 대한 훈련과 장비를 통해 이루어지며, 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 제공자와 자원봉사자 간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장비 사용과 다음을 위한 집중적인 연수가 실시된다:

- 치매의 초기 징후를 감지하는 일반인들의 능력 향상
- 스크린, 태블릿, PC 및 대학에서 개발한 새로운 오픈 소스 인지 자극 소프트웨어를 통한 인지 자극. 선별된 치매 환자 그룹을 위한 경두개 신경 조절(TMS)이 AUSL 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 망상적이거나 우울한 양상의 치매를 치료하고 물리적 및 약리학적 격리가 필요한 상황을 줄이기 위한 다감각 자극실. 이는 간병인의 번아웃 위험 감소를 위한 세션에도 사용된다.
- 야외 활동 프로그램, 안전한 보행로, 노인 전용 장비를 갖춘 체조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운동과 물리치료.
- 요양원 내의 완화의료 문화 도입.
- 노인들의 사회화 활동과 세대 간 만남을 촉진하기 위한 카페 등의 시설 설치, 치매에 대한 지식과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활동, 가족 간병인을 위한 연수활동 등.

측정가능한 주요 결과:

결과물: 치매에 대한 신규 진단이 3 년 차에 최소 5% 증가하고 5 년차에는 10% 증가.

결과물: 치매로 진단된 환자 총수 중 재활 서비스에 참여한 비율 80% 이상 기록.

결과물: 섬망과 같은 위기 상황에 있는 치매 환자의 응급실 입원률 70% 이상 감소.

결과물: 돌봄 경로에 대한 가족의 만족도는 3 년차에 60%, 5 년차에 80%로 증가.

왜 이 프로그램인가?

완화의료 전문가이자 로타리 회원인 안드레아 P. 로시 박사는 다음과 같이 개선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10 년 후의 제 모습이 그려집니다. 요양원에서 지금처럼 '로시 박사님'이라고 불리겠지요. 비록 제가 과거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말이죠. 우리는 노인들이 즐겁고 개인별로 맞춤형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태크놀로지와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터치 스크린에

중독된 새로운 노인 세대가 출현할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완화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지 및 신체 장애가 있는 노인들도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돌봄과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유용한 치료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말기 진정제만 투여하는 대신 죽음의 존엄성과 생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존중에 지대한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간병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각 개인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부끄러운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홈케어와 데이케어 센터를 더 많이 갖출 것입니다.”

연락처

더 자세한 정보는 알레시오 아베나티(Alessio Avenanti) 씨에게 이메일 alessio.avenanti@unibo.it로 문의한다.